

세계의 養鷄産業



덴마크편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1. 축산현황

스칸디나비아반도 아래에 조그마한 주트란드 반도로서 북해와 발트해에 접해있는 덴마크는 면적이 43,000km²이고 인구 500 만으로 483 개의 섬이 전체국토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이다. 전국토의 70% 가까이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고 9%정도가 연구 목초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19세기 말에 채소와 곡류를 주로 하였던 농업에서 축산업을 중심으로한 농업이 발달되어 왔다. 20세기에 들어와서 낙농업이 전체농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왔고 그다음이 고기소와 양계업으로 농업의 중추역할을 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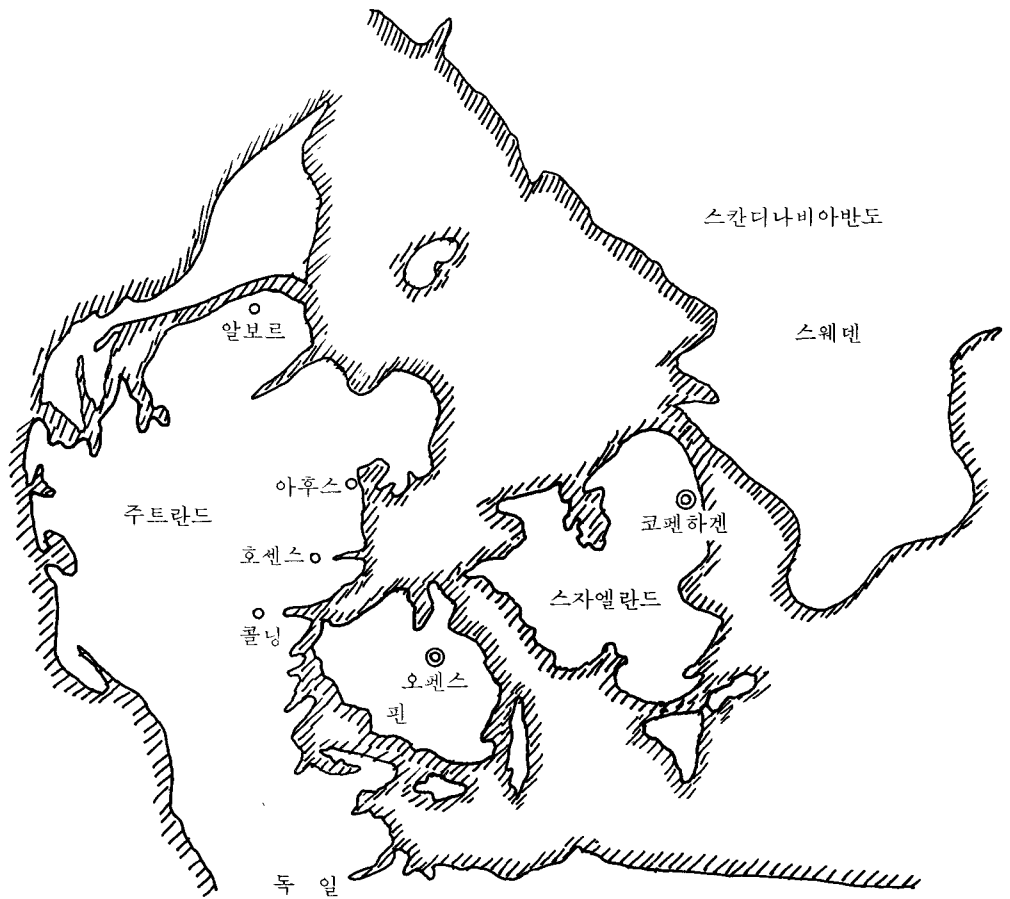
오래 전부터 정부에서는 시설, 교육, 자본 등을 계속적으로 지원하면서 모든 농가에서는 가족단위의 농장을 가지도록 정부시책을 펴 온 결과 대규모의 농장보다는 소규모나 중규모의 농가가 많아져 더 알차고 훌륭한 경영체제가 형성되어왔다. 목축업과 양계업은 주로 스자엘란드섬과 핀섬 그리고 주트란드반도의 동부지방에 분포되어 있고 고기소와 양돈업은 주트란드반도의 서쪽지방에서 주로 사육되고 있는데 현재 덴마크에서 사육되고 있는 각 가축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덴마크의 가축사육 현황 (단위 : 1,000)

가축명	61-65	73	74	75
소	3,413	2,957	3,100	3,048
말	84	50	55	56
돼지	7,462	8,423	7,763	7,748
면양	65	56	59	59
산양	5	5	5	5
닭	26,030	16,124	16,124	16,124
오리	785	801	801	801
칠면조	200	478	490	502

2. 양계현황

보로일러산업이 채란계산업 보다 중점적으



로 발전되어온 덴마크는 인구 1인당 3.2수의 사육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Home Marketing Scheme (양계산업 진흥책) 즉 양계생산물의 소비자가격에 일정량의 세금을 부과하여 여기서 얻어진 자금으로 양계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지와 과잉생산으로 인한 생산자의 손실에 대한 보조계획이 실시되어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사육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계속적인 발전을 해왔다.

닭고기 생산량의 60%정도를 외국에 수출하는 덴마크의 브로일러산업은 도계장에서 고시되는 시장가격과 사료가격 그리고 종계장에서 공급되는 병아리 공급계약등이 사전에 체결된 후에 닭을 기르는 관계로 안정된 경영형태를 취하고 있다. 도계장에서 도계처리가 되

지않는 닭고기는 시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계장과의 가격에 대한 사전계약이 생산자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까닭에 가격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사료가격 사육규모 입추계획 등이 결정되게 된다. 이와같이 도계장의 고시가격이 전체 브로일러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되고 도계장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에서 오는 사양가들의 불평으로 정부에서는 1917년 전국에 산재해 있는 도계장을 단포(Danpo)라는 단일 조합으로 결정시켰다. 브로일러 사양가 600여명으로 구성된 이 단포조합생출(出荷組合)에서는 1972년 국내전체 육계생산량의 40%를 생산하였고 전체 부화장의 50%가 이 조합에 가입하고 있어 가장 큰 양계가들의 조직으로 인정 받고 있다. 일부 개인 경영의 도계장에서는 단포조합과 경쟁 속에서 브로일러 사

육가들과 1년동안의 닭고기 가격을 제약하기도 하며 단포조합에서는 도체중을 기준으로 브로일러 가격을 고시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들은 생체중을 기준으로 가격을 설정하고 있어 사육가들의 흡수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또 일부 사육가들은 가격에 대한 사전 계약 조건도 없이 사육을 하는데 이들은 주로 고시 가격 보다 싸게 도계장에 브로일러를 판매하게 되지만 브로일러의 수요가 늘고 공급이 부족할 때는 다른 사육가들 보다도 비싼 값으로 판매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투기적인 경영방식을 취하는 농가도 많이 있다.

1973년 덴마크가 EECC (유럽공동시장)에 가입한 후 유럽공동시장의 농업정책에 따라서 세계의 가장 큰 닭고기 수입시장인 서독에 진출하게 되었고 수출시장의 확대와 동시에 EEC 정책에 따라서 국내양계 진흥책인 Home Marketing Scheme 이 철폐되었다. 이로 인하여 양계진흥의 자금마련을 위한 양계산물에 대한 부가세는 없어지고 양계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내소비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국내소비가 외국수출량보다도 많아졌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없는 덴마크의 양계산업은 수출시장이 확대되었지만 양돈, 낙농산업에 뒤지는 형태로 변해가고 있으며 덴마크가 EEC에 가입한 후 계속적으로 불안정한 양계산업에 관심은 줄어들고 일부 양계가들의 도산을 초래하게 되었다. 앞의 표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1973년 이후 급격히 사양규모의 감소는 물론이고 1972년에는 8,500 Ton의 닭고기를 생산하였는데 1973년에는 79,000 Ton으로 급격히 떨어졌고 1975에는 겨우 90,000 Ton으로 증가현상은 보였지만 계란생산에서도 1972년에 비해서 1973년에 6%정도가 감소한 120만 타아스 밖에 생산하지 못했다.

그후 계속적으로 양계산물의 가격과 사료가격의 혼란이 오게 되면서 사전계약이나 고시가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없는 소용돌이 빠져들게 되었다. 1975년에는 1973년의 닭고기 총수출량의 2/3밖에 도달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

후에는 별다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음에 많은 사람들은 밝은 덴마크의 양계산업은 점철 수가 없게 되었고 일부 노동자들의 파업현상 까지 발생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현상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닭고기 수출국인 네델란드에도 일어나게 되어 EEC 회원국이 아닌 제3국들의 닭고기 수출이 활발해져 가고 있고 덴마크가 EEC에 가입하기 전에 양계산물의 수입국이었던 프랑스가 이런 추세에 따라서 1976년에는 완전히 닭고기 수출국이 되어서 1972년에 비해 수출이 8배나 증가된 4,025만 Ton에 이르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EEC의 정책에 따라서 심한 혼란에 빠진 덴마크의 양계산업은 새로운 수출시장의 확대와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자동화 계획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회복의 단계에 발돋움하고 있는 반면에 1975년 계란수출을 전담하는 Board of Egg Exportation에서는 long egg 라는 제품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호응을 받으며 새로운 양계산업의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이 long egg는 계란수출 전담기구에서 개발된 것으로 신선란의 난황과 난백을 분리하여 6개의 난황과 난백을 혼합한 20cm 정도의 길다란 6개의 계란을 합친 새로운 계란으로 만든 것이다 내용물은 내부에 있는 난황이 32% 외부에 난황을 싸고있는 난백이 68% 무게는 300g이 표준이며 -30°C에서 15분간 얼려서 만든 것이다. 또 이 기구에서는 우유와 마찬가지로 계란을 난황과 난백으로 분리하여 1ℓ씩 봉지에 싼 향기가 있고 맛이 좋은 식품으로 만들어 수출을 계획하여 주목거리가 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축산의 선봉 위치에서 성장되어 온 덴마크의 양계산업이 일시적인 정책에 침체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오랜 경험과 저력있는 바탕을 기초로 새로운 양계산업의 돌파구가 멀지 않아서 마련되리라 생각한다.